

제31차 UN COPUOS 소위원회의 참가 보고

박 경 윤 / (SERI 책임연구원)

□ 차 례 □

I. 회의개요

II. 회의의 주요관점 사항

III.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사항

IV. 참가자의 의견

I. 회의개요

제31차 UN COPUOS 과학기술소위원회의 1994. 2. 21부터 3. 4까지 10일간 오스트리아 Vienna 소재 UN Office(Vienna International Center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FAO, ITU, UNIDO, IAEA, ASE, ESA, COSPAR, ICSU, IAF, ISPRS 등 국제단체와 COPUOS 회원국 53개 가입국중 43개 회원국과 12개 참관국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옵서버 참가요청에 따라 정부 훈령에 의거 참가하게 되었다. 회의는 UN 체제안에서 우주기술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기술개발에서 재해방지 범위에 이르기까지 지구 전반에 활용을 확장하는 것을 주제로 중점 논의 되었으며, 1992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위성통신 UN Workshop에서 채택된 아태지역 위성통신협의회 설립이 소개되고 금년 10월에는 위성통신에 관한 두번째 Workshop 서울 개최가 추진되고 있음도 안내되었다.

의장 : 호주의 J.H.Harver 교수, 한국대표 : 박경윤(SERI, 책임연구원)

II. 회의의 주요관점 사항

1. UN/OOSA(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가 NewYork에서 Vienna로 이전후 처음 개최되는 31차 소위원회
2. 제2차 UN COPUOS(외기권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UN회의 : UNISPACE82)의 권고사항의 이행 확인
3. 제3차 UN COPUOS(UNISPACE III)개최문제
4. 토의된 전문분야 : 원격탐사, 우주운반체, 우주통신, 우주의학, 환경감시, 행정탐사 특히 우주폐기물, 외기권에서의 핵물질 사용
5. Symposium 동시개최 분야 : 우주기술의 재해방지, 경보, 구조에의 활용

III.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사항

1. UNISPACE 82(제2차 UN 외기권 탐사와 평화적 이용에 관한 회의)의 권고사항의 이행 촉구
2. "UN 총회 결의안 48/39(1993. 12. 10) : 외기

- 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명시된 주요사항의 이행 확인
3. 우주이용 UN Program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
 4. OOSA(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의 최우선 과제는 우주이용 Program임을 재확인
 5. 우주이용 UN Program으로 1993~1994년에 수행되고 있는 각종 행사와 1995년 계획사항 및 보고서 등에 대한 확인(특히 한국에서 아·태지역 위성통신협의회의 사무국 설치와 위성통신 UN Workshop의 1994년 10월 서울 개최 준비가 명시되었음.)
 6. 국제기구들(FAO, ITU, WMO, UNESCO, INMARSAT, ESA)의 우주이용에 관련된 활동을 확인
 7. 각국이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 개발과 기술 공동 활용을 강조
 8. 특히 1986년 “UN 총회 결의사항 41/65: 의기권에서의 지구원격탐사관련 원칙”의 준수를 촉구
 9. 외기권에서의 핵물질 사용에 관한 원칙으로 UN 총회 결의안 47/68(1992. 12. 14)임을 확인하고 2년내에 개정을 논의하고 IAEA의 제안을 참작하여 차기 소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임.
 10. (Space Debris : 우주폐기물)
 COPUOS에서 최초로 우주폐기물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우주폐기물의 심각성을 확인하며 앞으로 우주폐기물 발생 등을 최소화함과 함께 다음 회의시 더 검토할 것임
 11. 우주운반체에 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공동 활용에 대해 국제적인 협조의 중요성과 혜택의 공유성을 확인하며 차기회의에서 계속 검토할 것임.
 12. 정지위성궤도와 통신주파수 영역에서의 기술향상과 저렴한 위성통신기술개발에서 각국의 공동협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장거리통신, 위성TV방송, 자료망, 환경자료중계, 이동통신, 방재경보 등에의 보다 많은 활용을 촉구함. 특히 ITU의 역할이 COPUOS와 상호 보완적임을 확인하고 각국의 이용의 균등성, 정지위성궤도의 확장과 우주폐기물 피해의 최소화를 계속적으로 촉구함.
 13. 지구환경관련 국제적 우주활동, 특히 지구환경변화 조사 Program의 진전에 주목하여 1992. 6 Rio에서의 UN환경회의 결과와 권고사항에 따른 역할을 중요시하고 IGBP의 진전과 이 문제에서의 위성 원격탐사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특히 Topex/Poseidon, UARS, TOMS, ATLAS-2, 행성 지구탐사계획-2, EOS, ADEOS, Meteor등의 위성에 의한 기여가 큼을 확인하며, 기후변화, 일기예보, 식생분포, 폭우, 홍수등의 환경재해에 대해 우주기술활용의 필요성을 확인함.
 14. 이미 많은 진전이 이룩된 우주의학기술의 공동활용과 위성통신을 통한 원격리 치료 기술 등은 각 나라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 사항에 대해 다음 회의시 계속 논의함.
 15. 행성탐사와 천문관측에 위성 활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다음 회의에 계속 논의함.
 16. 자연재해의 방지, 경보, 피해축소, 구제활동에 우주기술활용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원격탐사와 기상위성에 의한 우주기반 System의 기여가 크고 Cospas/Sarsat탐색 구조 위성 System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WMO에 계속하여 기상위성자료의 최우선 실비 제공을 권장함.
 17. 제3차 UNISPACE회의 개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을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고 제2차 회의 결과를 참작하여 가급적 광범위한 참여와 큰 기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특히 제3차 회의는 가급적 개발도상국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77그룹 국가에서 많이 나왔음.)

IV. 참가자의 의견

- COPUOS는 우주관련 첨단 기술분야의 공동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각종 우주기술자료의 수집과 기술이전을 가속하기위해 한국의 가입이 바람직함.
 - 한국은 최근 인공위성개발에 급진전을 이룩하고 있는만큼 COPUOS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각국과 공동으로 우주공간 활용에 대한 권리와 국가적 책임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특히 통신이나 방송위성은 대부분 정지궤도 위성인 점을 감안하여야 하고 이 자리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이므로 앞으로 한국의 위성자리 확보를 위해 COPUOS에 가입하여 우선적인 입지 확보를 서둘러야 할 것임.
 - 고성능 인공위성등에는 핵 발전기가 탑재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한국의 IAEA에 핵발전과 안전 규제 분야 전문가 진출이 많은 만큼 한국의 핵 전문가들도 위성궤도의 핵물질
- 규제 분야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 한국의 환경문제가 주변국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우주기술을 이용한 환경감시기술 개발과 활용에 각국과 공동보조를 갖기 위해 COPUOS를 통하여 활발한 국제공동연구 참여가 필요함.
 - 이미 한국은 1992년 서울에서 개최됐던 위성통신 UN Workshop에서 채택된 아·태지역위성통신협의회(APSCC) 사무국 유치를 COPUOS에서 인정받아 있고 '94년 10월에는 이 분야 UN Workshop의 두번째 서울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차제임으로 COPUOS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COPUOS는 위성통신뿐 아니라 원격탐사기술보급, 위성에 의한 환경감시, 우주폐기물, 우주선예의 핵물질 탑재, 우주의학, 위성궤도확보등 다방면의 기술과 법적 문제를 다루어야하는 만큼 COPUOS 활동을 위한 범부처적 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며 우선적으로 많은 우주기술문제를 다루기위해서 과학기술처가 중심부서가 되어 COPUOS관련 회의에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를 추진함이 타당하겠음.